

#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다른 공간’ 문제 연구

－ 『만주시인집』과 『만선일보』 문예란 시를 중심으로

김학중\*

1. 시작하며
2. 다른 공간의 원리와 만주
3. 고향의 다른 공간
4. 방과 무덤의 다른 공간
5. 마치며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재만 조선인 시가 문제화하고 있는 공간을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재만 조선인 시는 고향, 방, 무덤의 공간에 다른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공간을 문제화한다. 여기서 다른 공간이란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에 반하는 개념으로, 실제 있는 공간을 바탕으로 공간 내에 다층적으로 배치된 공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존의 재만 조선인 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향, 방 등의 공간을 단일한 공간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는 이 단일한 공간들에 배치된 양립불가능한 공간들이 존재하며 이것이 문제화되는 공간들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통치적 합리성이 만주라는 공간에 끼친 영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일제는 오족협화와 왕도낙토라는 지배

---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로

이데올로기를 재현하기 위해 만주를 분할하고 이를 통해 영토화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통치적 합리성을 구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에 따라 일제는 재만 조선인을 농촌 중심으로 이주시켰다. 조선인들이 수전을 바탕으로 하는 농법에 능했고 이를 활용해 만주에서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을 만주의 농촌에 할당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일제의 이러한 통치적 합리성은 재만 조선인이 공간을 문제화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만든다.

고향의 공간이 문제화되는 것은 만주의 농촌과 관련이 있다. 재만 조선인들은 만주의 농촌공간을 고향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일제가 원했던 수전 방식의 경작공간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것은 고향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만주의 경작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고향이란 공간에는 재만 조선인 자신이 거주하는 만주의 농촌이 함께 배치되게 된다.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나는 고향은 고향의 상실과 고향의 향수가 겹쳐 있는 장소가 된 공간이다. 이는 고향을 문제화한다. 이는 고향의 기원적 상실을 가리킨다. 동시에 고향은 이제 귀향 불가능한 장소로 재현된다. 그런데 고향이 귀향 불가능한 장소로 문제화되는 것은 단순히 고향의 기원 상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나게 한다. 윤리와 진리의 차원을 문제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방과 무덤의 공간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방의 공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른 공간은 윤리와 진리의 공간이다. 방은 고립된 공간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런 고립성으로 인해 외부 세계가 지탱하지 못하는 윤리와 진리를 보존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방의 공간이 무덤이란 공간과 서로 겹쳐져 나타나게 된다는 것에 있다. 방과 겹쳐져 나타나는 공간인 무덤은 방보다 윤리와 진리의 부재를 더욱 강화하는 공간으로 방 뿐 아니라 늘 고립된 방인 마을의 공간성을 드러내준다. 이러한 겹침으로 인해 방과 무덤 공간은 근대 국가체제 특히 일본의 제국주의가 근본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제화하는 장소가 된다. 방과 무덤 공간이 진리와 윤리의 부재, 더 나아가 진리의 윤리가 죽음의 장소에 배치되어 있음을 보여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윤리와 진리의 부재를 제국의

영광으로 가리고 있음을 환기한다. 이는 일제 지배 이데올로기의 스펙터클인 “영광”의 허구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방과 무덤의 공간은 공간을 문제화하는 것을 통해 저항의 공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나는 다른 공간이자 헤테로토피아인 고향, 방, 무덤은 새롭게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다. 이 장소들은 이미 있는 장소에 근거하면서도 그것에 숨겨진 배치를 문제화하면서 만주에서 일제가 영토화하려고 했던 공간에 저항의 공간을 양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만주, 재만 조선인, 헤테로토피아, 공간, 다른 공간, 다층, 고향, 방, 무덤, 오죽협화, 왕도낙토, 영광, 배치, 문제화, 통치적 합리성

## 1. 시작하며

본고는 만주국 개국 10주년 기념 시집인 『만주시인집』<sup>1)</sup>과 『만선일보』 문예란<sup>2)</sup>에 실린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시편들에 나타난 ‘다른 공간’의 문제를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만주시인집』과 『만선일보』 문예란의 시 작품들에는 만주, 북방, 고향, 방, 무덤 등의 공간이 여러 시인들의 다양한 시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나는 이 공간들은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장소(만주), 유량의 공간

---

1) 오양호의 『만주시인집의 문학사 자리와 실체』의 부록에 실린 『만주시인집』 영인본을 기초 자료로 하였다. 『만주시인집』은 박팔양이 편집한 만주국 개국 10주년 기념시집으로 1942년 9월 29일에 第一協和俱樂部文化部에서 간행되었다. 본고에 인용된 시의 페이지는 『만주시인집』 영인본의 페이지를 표기했음을 밝혀둔다.

2) 오양호의 『만주조선인문학연구』의 부록에 실린 『만선일보』 문예란 발췌본을 기초 자료로 삼았다. 본서를 기초 자료로 삼은 이유는 현재까지 나온 『만선일보』 자료 중 최초의 자료이기도 하고 그 외의 『만선일보』 문예란 수록 작품의 경우 대부분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 제시되는 페이지는 『만주조선인문학연구』의 페이지임을 밝혀둔다.

(북방), 향수의 공간(고향), 내적 저항의 공간(방)으로 논해져 왔다. 그런데 이들 공간은 역과 향구와 같이 도시와 관련이 있는 몇몇 공간을 제외하고는 상상수의 시편들이 만주의 농촌이나 만주의 광막한 대지 공간과 관련이 있다. 이는 만주에 이민한 조선인들이 대부분 농촌 공간에 거주한 것과 연관이 있다.

만주는 조선이 일제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해간 공간이다. 특히 191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의 압제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만주로의 이민이 활발해졌다. 초기에는 주로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간도 지방의 이주가 두드러졌으나 1930년대 후반부로 갈수록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이주가 이루어졌다.<sup>3)</sup> 이러한 이주는 초기에는 농촌 중심에서 점점 변모해 도시로도 이민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만주로의 이민은 농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1930년대 말 일본 관동군 사령부가 제정한 『재만조선인지도요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주 정책의 중심에 농민들의 경제활동, 즉 농산물 생산이 이민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잣대가 되었기 때문이다.<sup>4)</sup> 물론, 이러한 통제가 완벽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만주 내 조선인 이주민 상당수가 농민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재만 조선인 시인들의 작품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주시인집』과 『만선일보』 문예란 시들 중 상당수의 작품에 농촌 공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 작품들의 작가들 대부분은 실제로 농사와 관련된 직업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때문에 시 작품에 드러나는 공간으로 농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작가들의 실제적 삶과 밀착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일제의 통치와 연관성 속에서 창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는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에 이르는 시기동안 조선 내에서의 조선어 문학 활동을 금지하면서도 만주국에서 조선어로 작품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게

3)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19쪽.

4) 앞의 책, 45쪽.

제도화<sup>5)</sup>해두었는데 『만주시인집』과 『만선일보』는 이러한 일제의 제도에 의해 제작된 것들이었다. 일제가 조선어 문학 활동을 허락한 것은 일제가 만주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은 “오족협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책이었기 때문이다.<sup>6)</sup> 때문에 이 지면들에 실린 작품들은 조선어로 쓰였지만 일제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만주시인집』과 『만선일보』 문예란의 시들이 묘사하는 만주는 일제가 내세운 오족협화를 노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고향과 방, 무덤 공간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일제의 통치 이념들과 차이를 보이는 묘사들이 상당수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을 묘사하는 시들 중에는 고향, 방, 무덤 공간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 만주가 일제가 묘사하는 “왕도낙토”와는 거리가 먼 공간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만주에서의 궁핍한 삶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시적 묘사는 곧 고향에 대한 향수로 이어진다. 그런데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나는 향수의 정서에는 단순히 고향에 대한 낭만적 향수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5) 김영주, 김미란, 김재용, 김훈겸, 이동진, 이성천, 오양호 등의 기존 논의에서 만주국의 지배 담론에 대한 논의는 자세히 이루어졌다.

6) 김미란의 「낙토’ 만주의 농촌 유토피아와 공간 재현구조」와 와타나베 나오키의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과 ‘만주’ : ‘협화’의 서사와 ‘재발명된 농본주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일제는 이를 위해 만주를 독자적인 공간으로 제시하며 만주국의 국민을 이루는 다섯 민족들이 만주를 보는 관점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일제의 이런 통치를 위하여 일관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후속 연구로 밝혀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만주국 내에 대다수를 이루는 중국인을 포섭하기 위한 방책으로 내세운 오족협화와 왕도낙토는 만주를 포장하는 이데올로기로 어느 정도 작동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만주국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민족들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조선어 문학 활동을 제도화한 정책을 펴는 것 같이 다른 국가 구성원들과 구별이 지어지는 활동을 허용한 것도 그렇다. 오히려 오족협화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허구적이었고 실패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기존의 연구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에 실린 김재용의 「한설야의 『대륙』과 만주 인식」 등의 연구에서 오족협화의 허구성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오족협화를 선전하기 위한 『만주시인집』 등에서도 오족협화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 점에서 오족협화는 일제가 제시한 상상의 공동체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아니다. 재만 조선인 시는 이 지점에서 고향이란 향수의 공간과 이 향수를 수행하는 공간인 만주와 만주 내의 조선인 마을을 겹쳐놓는다. 무엇보다 마을을 이루는 집들과 그 집 안의 구체적 장소인 방이 향수의 공간인 고향과 겹쳐서 놓여 있다. 이 겹침은 만주라는 공간에 고향이란 공간을 기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이로 인해 시가 묘사하는 고향은 단일한 공간으로 읽혀지면서도 동시에 애매성을 지닌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만주와 고향은 서로 닮아 있으면서도 이질적인 공간으로 드러나며 이는 실제 만주의 농촌과 고향의 농촌의 유사성과 결부되면서 만주라는 공간을 문제화하게 된다.

문제화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만주가 향수의 공간으로 치환된다. 만주의 유랑민과 이민자들에게 궁핍함과 고단한 삶의 장소인 만주의 농촌이 향수의 대상이 되는 공간으로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향은 귀향할 수 없는 공간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고향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모하는데, 이는 귀향 불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환기하는 공간이자 살아서는 도달할 수 없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바로 무덤의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재만 조선인 시들은 고향과 방, 무덤의 공간이 만주라는 공간에서 배치되고 겹쳐지는 방식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공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재현하고 있다. 이는 실제하는 공간인 만주에 배치된 공간들이 숨기면서 문제화하고 있는 것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이렇듯 문제화하고 있는 다른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면서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다른 공간 문제를 다루어나가도록 하겠다.

## 2. 다른 공간의 원리와 만주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공간을 살피는데 있어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그 공간이 단일한 공간으로 이해되기에는 미세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제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표면적 투명성은 그 안에 잠재하고 있는 불투명성을 내포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읽어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공간에 다가가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본고는 푸코가 제안한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주목하였다.

헤테로토피아는 우리말로 ‘다른 공간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실제 공간 내의 배치의 변화와 기존 공간에 겹쳐지는 공간에 의해 위상이 바뀌는 방식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다. 무엇보다 헤테로토피아 공간은 언어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 특히 언어 놀이를 통해 형성되는 다른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시적 언어의 배치에 의해 다른 공간이 드러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헤테로토피아를 다른 공간의 중심개념으로 삼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또 하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실제하는 공간을 바탕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돌파구가 열리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만주 공간을 다룰 때 사용하였던 유포피아의 개념과 차별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만주가 유포피아가 아니었다는 논의를 풀어나가는 방식과는 다른 논의의 지점을 열 수 있다. 만주가 일제에 의해 의사 유포피아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일제가 내세운 “왕도낙토”와 같은 선전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일제는 만주국 성립과정에서 통치적 합리성을 가지고 만주국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특히 일제의 식량증산계획 등과 관련이 있다. 이는 특히 중일전쟁 이후 강화되는데 당시 만주국의 일본 기관들은 재만 조선인이나 조선 이주농민들을 활용해 식량 증산을 꾀했다. 이러한 방침 하에 일제는 방임적으로 허용하던 조선인 이주 정책에 변화를 주어 이주 회사를 통한 ‘집단 이주’, ‘집합 이주’ 를 실시하는 등 통제 이민 정책을 실시했던 것이다.<sup>7)</sup> 이러한 통치적 합리성은 그러나 단순히 이민 정책을

7) 이에 대해서는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2부에 실려 있는 김기훈의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에서 아주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김기훈은 만주로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나 관동군의 공문서의 차원에서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왕도낙토”와 같은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담은 슬로건 등과 함께 다루어졌고 “오족협화”와 같은 통치이념과도 연관되어 다루어졌다.

문제는 이것이 재만 조선인의 의식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가보다 이것인 어떤 흔적으로 남았는가를 살펴보는 데에는 유토피아의 허구성을 밝히는 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만 조선인 시를 살펴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토피아가 아닌 만주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상이 없는 공간인 만주에서 살아내면서 견뎌는 것이다. 재만 조선인 시에는 그러한 삶이 문제화한 공간이 남아있는 것이다.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이렇게 재만 조선인이 삶으로 감내하면서 만주라는 공간을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푸코는 다음과 같이 헤테로토피아를 정의한다.

내 관심사는 수많은 배치들 가운데 몇몇에 한정된다. 그것들은 다른 모든 배치들과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특성을 지닌다. 즉 그것들이 지시하거나 반영하거나 반사하는 관계의 총체를 중단시키거나 중화 혹은 전도시키는 양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 공간들은 어떤 면

---

조선인 이민을 일본 제국 내 이민으로 규정하면서 만주 이민과 관련된 일제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그는 크게 방임정책기와 통제정책기로 나누고 있는데 이 분기를 나누는 기점이 되는 시기를 중일전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방임정책기와 통제정책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일제가 어떤 정책 방향으로 이민에 개입하는가이다. 통제정책기에 조선인 이민은 집단 이민, 집합 이민의 형태로 이민 회사를 통해 이주가 진행되었다. 김기훈의 논의에 따르면 일제의 이런 통제이민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일제의 이민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민족이산과 도시』 서론에서 언급되는데, 여기서 일제의 이민정책의 실패가 만주로 유입된 조선족 이민자들의 도시 유입과 연관됨을 논하고 있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일제의 이민정책의 성공여부가 아니라 일제가 만주를 식민지 식량 증산 기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며, 특히 만주 이민을 통해 유입된 조선인들이 실제로 농촌에서 쌀 생산을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여 고향과 유사한 환경의 수전 개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에서는 다른 모든 배치들과 관계를 맺지만, 동시에 그것들에 어긋난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유토피아가 있다. 유토피아는 실제 장소를 갖지 않는 배치이다. 그 배치는 사회의 실제 공간과 직접적인 또는 전도된 유비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그 자체로 완벽한 사회이거나 사회에 반한다. 그러나 어쨌거나 유토피아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비현실적인 공간이다.

마찬가지로 아마도 모든 문화와 문명에는 사회 제도 그 자체 안에 디자인되어 있는, 현실적인 장소, 실질적인 장소이면서 일종의 반(反)배치이자 실제로 현실화된 유토피아인 장소들이 있다. 이 안에서, 실제 배치들, 우리 문화 내부에 있는 온갖 다른 실제 배치들은 재현되는 동시에 이의제기당하고 또 전도된다. 그것은 실제로 위치를 한정할 수 있지만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장소들이다. 이 장소는 그것이 말하고 또 반영하는 온갖 배치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르기에, 나는 그것을 유토피아에 맞서 헤테로토피아라고 부르고자 한다.<sup>8)</sup>

실제 장소를 갖지 않는 배치인 유토피아와는 반하는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은 현실 공간에 자리한 ‘다른 공간’을 읽는 중요한 지평을 마련해준다. 푸코에 따르면 한 공간 안에도 다양한 배치가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공간이 자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다른 공간이 있는 공간으로서 헤테로토피아를 이해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헤테로토피아, 이 다른 공간을 ‘틈새의 공간’<sup>9)</sup>을 읽는 담론으로 이해하는

---

8)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46-47쪽.

9) 곽은희의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가 대표적이다. 현재 만주 연구에 있어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도입 단계에 해당된다. 아직까지는 문학 연구보다 문화 연구나 역사연구에서 만주에 대한 기억을 다룰 때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연구의 지평에서 만주는 즉각적으로 헤테로토피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고는 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에 대한 지평은 이런 지점에서 유토피아의 대체적 개념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양상이다. 앞으로의 개념 수용 과정에서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

것이다. 헤테로토피아는 단순히 공간의 틈새에 놓인 공간이 아니다. 헤테로토피아는 실제하는 공간의 위상이 변해 발생하는 공간이고 양립불가능한 공간을 마주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시간이 단절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또 다른 현실공간을 구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단순히 헤테로토피아를 틈새의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공간인 헤테로토피아의 특성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푸코가 제시한 헤테로토피아의 6가지 원리<sup>10)</sup> 중에서 본고가 중점적으

- 
- 10)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에 실린 「다른 공간들」이란 짧은 논문에서 헤테로토피아의 6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원리에서 푸코는 세계의 문화들 가운데 헤테로토피아를 구축하지 않은 문화는 없을 것이라고 논하며 두 가지 유형의 헤테로토피아를 제시한다. 1) 위기의 헤테로토피아, 이 공간은 특권화된, 신성한, 혹은 금지된 장소들이다. 원시사회에 존재한 헤테로토피아, 오늘날 이전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이 장소는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청소년, 달거리 중인 여성, 임신 중인 여성, 노인 등—에게만 허용되는 장소이다. 기숙학교, 군대, 신혼여행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일탈의 헤테로토피아가 있다. 이 공간은 사회적 규범의 요구나 평균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요양소, 정신병원, 감옥 등이 거기에 속한다. 두 번째 원리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한 사회는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으며 존재하고 있는 헤테로토피아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 묘지, 교회) 세 번째 원리, 헤테로토피아는 서로 양립불가능한 복수의 공간, 복수의 배치를 하나의 실제 장소에 나란히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 (예: 정원, 양탄자) 네 번째 원리, 헤테로토피아는 대개 시간의 분할과 연결된다. (예: 묘지) 다섯 번째 원리, 헤테로토피아는 언제나 그것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침투할 수 있게 만드는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전제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헤테로토피아적 배치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는 없다. 우리는 거기 강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의례, 정결의식에 따라야만 한다. (예: 군대, 감옥) 여섯 번째 원리, 헤테로토피아의 마지막 특징은 그것이 나머지 공간에 대해 어떤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두 가지 극단적인 축 사이에서 펼쳐진다. 한편으로 헤테로토피아는 환상 공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공간은 모든 현실 공간을, 그리고 인간 생활을 구획하는 모든 배치를 (환상공간보다도) 더욱 환상적인 것으로 드러낸다. (예: 매음굴) 이것을 환상의 헤테로토피아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한편, 이와는 반대로 우리 공간이 무질서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이라고 보일 만큼 완벽하고 주도면밀하고 정돈된 또 다른 공간, 또 다른 현실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기능을 가지게 되는 헤테로토피아도 있다. 그것은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예: 식민지) 여기에서 푸코는 몇몇의 경우에 식민지들은 전 지구적 수준에서 공간의 조직화라는 문제와 관련해 헤테로토피아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로 다룰 부분은 세 번째 원리와 네 번째 원리, 그리고 여섯 번째 원리이다. -본고는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나는 고향, 방, 무덤 공간을 논의의 중심으로 다루는데 이들 원리가 논의를 풀 열쇠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 세 번째 원리는 양립불가능한 복수의 공간 또는 복수의 배치를 하나의 실제 장소에 나란히 구현할 수 있음을 논한다. 이 원리는 만주의 농촌에 재만 조선인의 고향인 조선의 농촌을 겹쳐놓으려고 했던 일제의 통치 시도가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다른 공간인 고향의 문제화를 야기한다. 네 번째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후에 이어지는 논의에서 고립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공간 문제를 대입할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 방과 무덤이 지닌 다른 공간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원리가 묘사하고 있는 보정의 헤테로토피아인 식민지 문제와 연결된다. 이것은 일제가 공간을 영토화하고 재분할 했는가와 연관된다. 앞서 살펴본 일제의 통치적 합리성에 의해 만주를 식량 증산 기지로 인식한 것은 바로 이 보정의 헤테로토피아의 원리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원리는 그런 점에서 앞의 두 원리 모두의 근원이 되는 원리가 되겠다.

만주에 대한 일제의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는 무엇보다 “왕도낙토”와 “오족협화”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재만 조선인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 보정의 헤테로토피아가 은폐하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만주국 건국의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을 가리는 것이며, 일제의 수탈 매커니즘을 가리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일제의 통치가 근본적으로 결여하는 것, 즉 근대적 국가 체계와 이를 작동하게 하는 상상의 공동체-오족협화는 실제하지 않는 상상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를 작동시키기 위해 근대국가의 기원을 가리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는 왕도낙토 뿐 아니라 동방요배나 신사참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것을 강요했다. 이는 국가를 찬양하는 종교적 차원의 세속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제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영광”이라는 기표를 기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이는 서구의 근대국가 체계 분석에서 종교의 권위

를 세속화하여 국가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작업과 맥락을 같이 한다.

11) 조르조 아감벤은 *The Kingdom and Glory*에서 어떻게 경제가 정치의 차원을 넘어 근대 체계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서게 되었는지 질문한다. 그러면서 근대국가가 추구하는 국가의 “영광”이 권력의 차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핀다. 이는 오늘날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정치 대신 경제가 문제화되고 있는 다양한 지평을 근본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아감벤은 우선 중세 기독교를 검토하면서 기독교에 기독교 경제라는 차원이 있음을 계보학적으로 밝힌다. 여기에서 아감벤은 중세 기독교가 ‘신비로운 경제’라는 인식을 도입함으로써 기독교 세계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것이 중세 기독교 체계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작업이 기독교에 필요했던 이유는 신의 은총이라는 것을 재현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기독교 회의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봉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감벤은 기독교 패러다임이 정치적이거나보다 경제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성찰은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검토한 부분과 맥락이 유사하다. 그러나 아감벤은 기독교 경제의 차원이 프로테스탄트의 등장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계보학적으로 기독교 경제를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기독교 경제가 단순히 자본주의 정신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이 아니기에 발생한다. 아감벤의 논의의 차별성은 여기에 놓여있다고 생각된다. 아감벤은 근대 체계가 들어서면서 국가가 기독교의 전략을 세속화한다고 논한다. 여기에서 “신비로운 은총”은 “영광”으로 바뀌어 강조된다. 이 “영광”은 근대국가가 추종하는 일종의 스펙터클이다. 아감벤은 이를 *The Kingdom and Glory*의 제7장 *The power and Glory*에서 “영광”과 “권력”에 대해 분석하면서 치밀하게 다룬다. 여기에서 아감벤은 “영광”이 제의, 세레모니, 열병식 등과 관련이 있음을 분석하는 대목은 주목을 요한다. 아감벤은 고대로마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는 시기의 권표 분석을 수행하면서 국가 세레모니 등이 기독교를 거쳐 근대에 이르면 위협스러운 정도로 전체주의의 의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논한다. “영광”은 이 지점에서 권력과 관련될 때 근대적으로는 국가적 세레모니라는 형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영광”은 여기에 이르면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두 번 배제된다. “영광”은 그렇게 한번은 인간의 법에서 다른 한번은 신학적인 법에서 배제되면서 이 둘 사이를 치환하게 하는 서명을 우리의 몸에 남긴다. 근대국가가 이러한 작업에 반복적으로 매달리면서 만들어나가는 의식은 국가에 대한 숭배 혹은 예배의식이며 이는 근대국가가 박물관 등에 공을 들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근대국가가 이러한 작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영광”을 바탕으로 근대국가의 경제 체제의 빈 공간, 즉 정치적 차원의 부재를 가리기 위함이다. 배제됨으로써 포함된 정치적 차원은 근대국가 체계의 기원을 환기한다. 국가의 “영광”은 이 기원을 은폐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다름 아닌 것이다. 때문에 아감벤은 이 기원을 벤야민이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논의했던 역사와 마찬가지로 기원을 다시 현재화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다시 우리 앞에 도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일제가 근대 민족국가의 상상적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이데올로기에 “영광”이라는 기표를 기입한 것임을 말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단순히 허구적이거나 재만 조선인을 궁핍한 상태에 처해 놓았다는 차원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재만 조선인의 시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다른 공간’의 문제에 다가보도록 하자. 먼저 고향의 다른 공간을 살펴보자.

### 3. 고향의 다른 공간

재만 조선인 시에서 고향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향수되고 있는 고향은 농촌의 풍경 재현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그런데 이러한 향수가 불러내는 고향이 일으키는 농사일과 휴과의 친연성은 만주에 이민 온 조선인들에게 어떤 동요를 야기한다. 물론 이 동요는 아주 미묘한 것이어서 우리 앞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만주의 농촌이 어느 시점에서 미묘할 정도로 고향의 농촌과 닮아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만주의 농촌 공간과 고향 공간의 친연성을 환기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고향에 대한 향수의 정서 때문에 고향의 공간에 만주의 농촌 공간이 배치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고향과 만주는 사실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공간이다. 고향은 재만 조선인들이 떠난 공간이고 만주는 재만 조선인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향수라는 방식을 통해서 고향을 불러낼 때 이 두 공간이 함께 배치되어 나타난다. 더불어 고향의 공간은 만주의 농촌 공간이라는 실제하고 있는 공간에 기입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고향은 이제 서로 양립불가능한 공간이 양립한 공간이 된다. 이제 고향은 다른 공간을 내부에 배치하게 되면서 문제화된다. 헤테로토피아의 세 번째 원리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양상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문제화하는가? 이 장에서는 재만 조선인 시들을 살펴보면서 이를 논해보고자 한다.

재만 조선인 시에서 고향의 공간이 문제화되는 것은 만주의 농촌과 관련이 있다. 재만 조선인들은 만주의 농촌공간을 고향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일제가 원했던 수전 방식의 경작공간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고향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만주의 경작지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일제가 선전하는 “왕도낙토”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쳐 조선인 스스로가 추구하는 “낙토”의 모습, 즉 고향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왕도낙토의 지배 이념 안에 조선인들은 조선인 스스로가 이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공간인 고향을 겹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향이란 공간에는 재만 조선인 자신이 거주하는 만주의 농촌이 함께 배치되게 된다.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나는 고향은 고향의 상실과 고향의 향수가 겹쳐 있는 장소가 된 것이다. 때문에 만주에 대한 낭만적 동경은 간단히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아래에 인용한 시는 어떻게 조선인 스스로가 고향을 만주에 옮겨 놓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언제나 즐거운 동무  
언제나 情드난 동무  
흘근 내 썩요  
흘근 내 살이요  
흘근 내 피요

내손에 못이박히고  
내등이 다—달어도  
내힘이 다 가는데 까지  
흘근 나와갓치왔고  
흘근 나와갓치살고  
흘근 나와갓치죽고  
내발에 미트리를 신고

내머리에 수건을 쓰고  
한쪽박아지에 목숨만 가지고  
흘글차저 여기 왔소  
흘글파러 여기 왔소

언제나 쓰난 해와함께  
일하기 즐거울썸  
쌍파기 즐거울썸  
千萬年이 흘너도 흘너도  
흑과갓치 살갓소  
흑과갓치 죽갓소

— 신상보, 「흑과갓치살갓소」, (『만주시인집』 18-19쪽.)

『만주시인집』에 실린 신상보의 시는 흠에 관한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바로 이런 친밀감을 갖는 공간인 만주를 찾아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내 발에 미트리를 신고/내머리에 수건을 쓰고/한쪽박아지에 목숨만 가지고/흘글차저 여기 왔소/흘글파러 여기 왔소”라는 표현이 그것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강화되는 것은 만주라는 땅이 흠과의 친연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점을 가리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만주야말로 고향의 것을 가진, 고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되면서 고향이란 공간에 다른 공간이 양립하게 된다. 이는 양립불가능한 공간이 함께 배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만주는 재만 조선인에게 고향의 대용물이며 동시에 고향이며 늘 향수하게 하는 공간이다. 만주의 농촌은 재만 조선인에게 있어서 이국이며 동시에 고향인 것이다. 이는 고향을 향수하게 하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하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이때의 고향은 분명 장소를 가진 공간이지만 만주라는 공간에 ‘다른 공간’으로 기입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른 공간으로서의 고향은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는가? 시에 있어서 고향은 본래적으로 기원적인 것의 지평을 가리킨다.<sup>12)</sup> 그런데 이 기원적 지평이 기원적인 것이 아닌 지평에 기입될 때 기원은 은폐된다. 그 지점에서 회상은 기원적인 것을 문제화하지 못하고 고향이라는 기원적 장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될 때 회상은 불가능해지고 기표의 연쇄와 같은 상상력이 상실된 공간만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

『만주시인집』에 실린 시들 중 이러한 문제화가 드러나는 시에는 김조규의 시와 함형수의 시가 있다. 먼저 김조규의 경우를 살펴보자. 김조규는 1930년대에 시현실 동인과 연관된 『맥』 등에 참여하면서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에 두각을 보였다. 그러던 상황에서 만주로 이동하게 되면서 만주국 내에서 재만 조선인들의 궁핍한 삶을 형상화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김조규는 만주국의 지배 이념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작품도 썼다. 흥미로운 점은 주제적으로 사회적 억압에 대한 비판을 보이면서도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을 접목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김조규는 이를 통해 기존 문단의 형식적 초현실주의를 극복했다는 평가<sup>13)</sup>도 받는다. 그런데 김조규의 성취는 거기에서만 그치고 있지 않다. 김조규의 시에서 고향은 다른 공간을 통해 문제화되고 있으며 이는 앞서 논한 고향의 기원이 은폐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조규가 어떻게 이러한 다른 공간의 문제를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아래의 시를 살피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

12) 마르틴 하이데거의 후기 저작인 『회상』은 월탈린 시의 가장 큰 성취를 기원적인 것에 대한 회상, 곧 고향으로의 정신적인 여행을 지속적으로 가능한 차원으로 돌려놓는 시적 작업을 한 것에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기원은 본래적인 것이 축적되고 되돌려지는 차원이다. 고향에 대한 향수는 회상과 마찬가지로 기원적인 것을 사유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인데, 재만 조선인에서는 문제화되는 부분은 이 기원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13) 이성혁, 「1940년대 초반 식민지 만주의 한국 초현실주의 시 연구」, 『우리문학연구』 34, 우리문학회, 2011, 358쪽.

胡弓

어두운 너의 들窓과함께 영 슬프다

山하나 업다 들어보아야 기인 地平線

슬픈 葬列처럼 黃昏이 흐느낀다

저녁이 되어도 눈을 못뜨는 이마을의 思想과

胡弓의 줄만 곱으는 瞑目한 이마을의 思想과

胡弓

아픈 典設의 마디 마디 哀然한 曲調

기집애야 왜 燈臺을 고열줄 모르느냐?

너노래 듣고 어둠이 점점 걸어오는데 오호 胡弓

어두운 들窓을 그리는 記憶보다도

저녁이면 燈불을 밝드는 風俗을 배워야 한다.

—어머니의 자장 노래란다.

—일허버린 南方에의 鄉愁란다.

밤새 늦길려 느냐? 胡弓

(저기山으로 가거라 바다로 내려라 黃河로 흘러라)

어두운 너의 들窓과 함께 영 슬프다.

— 김조규, 「胡弓」 전문, (『만주시인집』, 40-41쪽.)

1연에서 “山하나 업다 들어보아야 기인 地平線”이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아 이 시가 재현하고 있는 장소는 만주의 농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있는 곳으로 흘러드는 슬픈 곡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옆집의 들창 너머에서 들려오는 호궁의 슬픈 곡조이다. 그 곡조에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과 무력함이 담겨 있다. “슬픈 葬列처럼 黃昏이 흐느낀다/胡弓의 줄만 곱으는 瞑目한 이마을의 思想과/胡弓/아픈 典設의 마디 마디 哀然한 曲調”라고 노래하는 것에서 이를

잘 느낄 수 있다. 이국의 땅에서의 삶은 슬픔을 감내하기 위해 그저 호궁의 줄만 고르며 연주하는 것 정도가 허락되는 것이다. 이러한 슬픔의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는 것은 2연에서 묘사되고 있는 “어두운 들窻”에서 이다. 호궁의 연주자는 슬픔을 연주하며 불을 켜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화자는 “저녁이면 燈불을 밝드는 風俗을 배워야 한다.”라고 노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호궁이 연주하는 노래는 “어머니의 자장 노래”이며 “南方에의 鄉愁”가 겹쳐져 있는 노래이다. 타향에서의 슬픈 노래는 어린 시절의 안온한 베갯머리를 상기시키는 자장가 혹은 떠나온 남쪽에 대한 향수의 곡조이다. 이 노래가 여는 공간은 따뜻함이 깃드는 순간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기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이 노래가 “山으로 가져”나 “바다로 나”리던가 “黃河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흘러감의 지향성이 불가능한 공간을 향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호궁의 연주자인 들창 너머의 “기집애”가 떠나온 남방은 단순히 떠나온 남방이 아니라 “일허버린 南方”이기 때문이다. 고향은 상실된 채로 타국인 만주의 지평선이 보이는 마을, 바로 그 장소에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고향의 다른 공간이다.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인 마을에 다른 공간으로서의 고향이 기입되어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은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공간인 고향은 이미 항상 마을에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공간에 무감각하다. 화자가 “이마을의 思想”이 “瞑目(명목)”이라고 노래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만주라는 공간에,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마을의 공간에 눈이 멀어-중독되었다는 점에서-있고 동시에 눈이 감겨 있다. 다른 장소는 보이지 않는다. 헤테로토피아로서의 고향, 이 고향은 배제된 채로 향수되며 향수되는 것으로 배제되고 있다. 다른 공간인 고향은 그렇게 추방되어 있다.

「호궁」에 나타난 다른 공간인 고향은 이미 추방되어 있는 장소이며 바로 그렇기에 거기에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의 사상”이 본래적으로 잃어버린 고향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고향이 다른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마을, 그 마을의 헤테로토피아를 깨우는 음악이 울리는 장소는 늘 어두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눈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때문에 그것은 음악을 통해서가 아니면 눈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 문제는 화자에게 “어두운 너의 들쭉과 함끼” 슬픈 정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고향에 대한 향수는 불가능한 것이 된다.

어두운 공간이며 다른 공간인 고향, 그것은 재만 조선인에게 할당된 농촌을 문제화하는 공간이며 동시에 고향 공간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일제의 지배 이념에 의해 관리되는 재만 조선인 농촌 마을은 이에 대해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인은 “瞑目(명목)”이라는 시어를 통해 이를 문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김조규 시에 대한 논의에서 아포리아처럼 다루어진 “瞑目(명목)”이란 시어는 바로 이러한 차원에 대한 시적 조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함형수의 시를 살펴보자. 함형수는 <시인부락>으로 활동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시인이었다. 초기의 함형수 시는 시인부락의 시적 특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함형수가 시인부락의 시인들인 서정주, 유치환 등의 북방행 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순수시를 지향한 함형수는 사회적인 감수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던 것이 만주로 넘어오면서 시적 세계에 변모가 발생한다. 『만주시인집』 등에 실린 시편들이 그의 변모를 대표한다. 이 시기 함형수의 시들은 만주에서의 윤리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으로 나아간다<sup>14)</sup>고 논해진다.

이러한 함형수의 변모는 공간 문제와 연관이 깊다고 판단되는데, 본고의 논의에서 볼 때 함형수도 앞서 살펴본 김조규의 시와 마찬가지로 고향의 다른 공간을 문제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형수의 시를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논해보자.

14) 오양호, 『만주조선인문학연구』, 문예출판사, 1996, 85-92쪽.

그들은 못는다 내가 갓섰던 곳을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어덧는가를  
그러나 내무엇이라 대답할꼬  
누가 알라 여기 돌아온것은 한개 덧업는 그림자 뿐이니

먼- 하늘 쫓에서  
총과 칼의 수풀을 헤엄쳐  
이손과 이다리로 모- 든 무리를 못찢렀스나  
그것은 참으로 쏘하나의 肉體였도다  
나는 거기서 새로운 言語를 배웠고 새로운 行動을 배웠고  
새로운 나라(國)와 새로운 世界와 새로운 肉體와를 어덧나니  
여기 도라온것은 실로 그의 그림자 뿐이로다

— 함형수, 「歸國」 전문, (『만주시인집』, 46쪽.)

이 작품은 일견 평범해 보이는 작품이다. 오랜 타향살이 후에 귀향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 귀향이 특이한 것은 이를 “歸國”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대부분의 재만 조선인 시인들이 “귀고” 또는 “귀향”으로 표현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만주시인집』에 실린 유치환의 「귀고」를 떠올릴 때 더 두드러진다. 유치환은 「귀고」에서 그리던 고향으로의 귀향을 노래하며 고향의 풍경을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묘사한다. 반면 함형수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게다가 “귀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귀향이 우리가 잃어버린 “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던지시 암시한다. 이런 내용적인 문제로 파고들기 이전에 『귀국』의 창작 시기를 염두해볼 때에도 살펴야할 문제가 있다. 함형수는 『만주시인집』을 간행할 시기에 만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함형수가 한반도로 돌아온 시기는 해방 이후로 추측<sup>15)</sup>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귀국」은 상

15) 조규익은 『해방전 만주지역의 우리 시인들의 시문학』에 실린 「함형수와 그의 시」의 서두에서 함형수의 이력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만

상력에 의해 묘사되고 있는 귀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에 대해 논해보기 위해 시를 좀 더 분석해 보기로 하자.

1연은 첫 부분에서 고향에 돌아온 화자를 맞이하는 고향의 태도를 묘사한다. 화자는 이 질문들을 받으면서 귀향의 기쁨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연을 말미에서 “내무엇이라 대답할꼬/누가 알랴 여기 돌아온것은 한개 덧업는 그림자 뿐이니”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독백인데, 주목을 요하는 것은 자신의 귀향을 그림자의 귀향으로 형상화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은 2연에서 “나는 거기서 새로운 言語를 배웠고 새로운 行動을 배웠고/새로운 나라(國)와 새로운 世界와 새로운 肉體와를 어뎠나니”라고 노래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여기 도라온것은 실로 그의 그림자 뿐이로다”라는 2연의 마지막 행이 바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만주에서, 타향에서 온몸으로 삶을 감내하였다. 문제는 거기에서 화자는 새로운 나라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만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거기에서 화자는 새로운 나라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 그리고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육체를 얻었다. 이는 매우 문제적이다.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얻었다는 것은 본래적인 것을 귀향할 수 있는 것, 혹은 귀향해야 하는 것을 잃었다는 것이 된다. 육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육체를 얻었다는 표현은 이러한 잃어버림을 강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김조규의 「호궁」에서 「잃어버린 남방」으로 귀향할 고향이 표현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시적 인식 때문에 함형수는 귀국한 것을 “그림자”라

---

주로 이주해 지내다가 해방 후 북한 지역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 이외에 함형수가 만주 체류 시 조선에 다녀간 기록을 찾지 못했고 그의 일대기적 정보를 찾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다만 본고는 이를 통해 함형수가 「귀국」을 창작할 시기 귀향한 경험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시에서 묘사되는 귀향이 상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고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귀향의 불가능성은 강조되는데, 왜냐하면 정작 귀향해야 할 존재는 귀향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기원은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래적인 것의 귀향이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귀향이란 시어의 사용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기에 화자는 자신이 고향에 돌아온 것을 “귀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고향은 고향으로 귀향하지 못한다. 그것의 차원은 새롭게 주어졌던 나라라는 지평에서 추방되어 있다. 함형수가 다른 공간인 고향의 부재에 대해서 감각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공간인 고향, 헤테로토피아로서의 고향은 부재를 통해 현존의 지평을 우리에게 환기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필연적으로 고향의 상실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그림자로 돌아온 자신, 고유함을 잃어버린 자신만이 있다. 그리고 고향의 그림자인 “지상”만이 있다. 그래서 함형수는 “나는 저 아득한 한늘을 치어다 불췌/마음은 슬퍼지고 외로움으로 눈물이 작고 난다/저 나라에서도 나나 또 여기처럼 이리케 孤獨할까바” (『悲哀』, 『만주시인집』, 48쪽.)라고 노래하는 하는 것이다. 그가 마주하는 고독은 바로 이러한 지평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인들의 작품에서 나타난 고향의 다른 공간들은 양립불가능한 고향의 두 공간, 고향—또는, 고향의 기원적 공간—과 만주의 농촌—또는, 고향을 은폐하는 가상의 고향 공간—이 양립하는 가운데 공간을 문제화하였다. 이를 통해 고향은 귀향 불가능한 장소가 되었다. 고향이 귀향 불가능한 장소로 그 기원이 은폐되면서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다른 공간의 문제는 이제 북방 만주를 고향으로 향수하는데 이르기까지 한다.

北風이 가슴을 콕콕 찌르는 밤  
나의旅情은 외롭게 北方을 찾아간다

그 故鄉 白樺林 숲속에서는

하로중일 가마귀가 서리웁게 올고  
禮拜堂 보이는 夕暮의風景은  
나의 浪漫性을 자라내었다.

國境에서는 하로에 몇번씩인가  
素朴한 傳說을실고 썰매가 往來한다.  
少年인 나의 손고락을 입에물고  
몰내 고개우에서 썰매와 離別한다.  
그새에는 眞珠가튼눈물이 뺨을시쳐주었다.

어미는 콧물을 훌적훌적 드러마시면서  
조고만 溫突房에서 童話를 들려준다.  
나는 어미물팍에 지태여  
자장가 듣는것처럼 어느새엔가 잠이든다.

星座의色彩가 大理石처럼 선듯한 밤  
나의 旅情은 오늘도 쏘 외롭게  
追憶을 두고온 북방을 차저가누나.

— 장인석, 「北方의 詩」 전문, (1940. 1. 13)<sup>16)</sup>

『만선일보』 문예란에 실린 장인석의 시 「북방의 시」는 유년 시절을 만주에서 보낸 화자의 기억을 묘사하고 있다. 1연에서 화자는 차가운 “북풍”을 맞으며 북방인 만주를 향수하기 시작한다. 2연에서 화자는 소년시절 보낸 만주의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을 회상한다. “少年인 나의 손고락을 입에물고/몰내 고개우에서 썰매와 離別한다./그새에는 眞珠가튼눈물이 뺨을시쳐주었다.”라는 진술이 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추억은 어머니와도 연결된다. 3연에서 묘사되는 모습은 우리 고향의 겨울 어느 날, 차가운 바깥에서 놀다가 돌아온 아이를 맞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연상시

16) 오양호, 『만주조선인문학연구』, 문예출판사, 1996, 321쪽.

킨다. “나는 어미물팍에 지태여/자장가 듣는것처럼 어느새엔가 잠이든다.”  
은 이런 정서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제 고향은 북방이 되었다. 이제 “나의  
여정은 오늘도 또 외롭게/추억을 두고온 북방을 차저가누나.”라고 노래  
하면서 고향의 기원을 추방시킨다. 그렇게 다른 공간의 위상에서 고향  
공간의 배치를 만주 쪽으로 바꾸어 놓는다.

#### 4. 방과 무덤의 다른 공간

다음으로 다른 공간으로서의 방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만주에서의 공간 문제는 다른 공간으로서의 고향과 연관  
이 있었다. 만주라는 공간에 고향이 기입되면서 고향은 기원적으로 상실  
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고향으로의 귀향 불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  
다면 방은 어떤 공간 문제를 가지는가? 더불어 방의 공간에 겹쳐지는 무  
덤의 공간은 어떤 것을 문제화 하는가? 고향으로의 귀향 불가능성이 나  
타날 때, 향수할 수 있는 낭만적 가능성마저 막혔을 때 방의 공간은 중요  
한 공간으로 등장한다. 방이란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른 공간은 본질적인  
차원을 문제화하여 우리 앞에 제시하기 때문이다.

방의 공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른 공간은 윤리와 진리의 공간이다.  
방은 고립된 공간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런 고립성으로 인해 외부 세계가  
지탱하지 못하는 윤리와 진리를 보존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방의 공간  
이 무덤이란 공간과 서로 겹쳐져 나타나게 된다는 것에 있다. 방과 겹쳐  
져 나타나는 공간인 무덤은 방보다 윤리와 진리의 부재를 더욱 강화하는  
공간으로 방 뿐 아니라 늘 고립된 방인 마을의 공간성을 드러내준다. 무  
덤인 마을의 공간성은 앞서 살펴본 귀향 불가능성의 심화된 양상이며  
동시에 왜 그러한 귀향이 불가능해졌는지를 더욱 심화해서 우리 앞에  
보여준다. 윤리와 진리가 부재할 때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은 없다. 그것  
이 바로 윤리와 진리의 공간의 부재가 가리키는 것이다. 윤리와 진리의  
공간은 죽음의 공간에 겹쳐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겹침으로 인해 방과 무덤 공간은 근대 국가체계 특히 일본의 제국주의가 근본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제화하는 장소가 된다. 방과 무덤 공간이 진리와 윤리의 부재 더 나아가 진리의 윤리가 죽음의 장소에 배치되어 있음을 보여줄 때, 이는 일본 제국주의가 윤리와 진리의 부재를 제국의 “영광”으로 가리고 있음을 환기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고립된 공간, 죽음의 공간이 나타나는 방과 무덤의 공간이 그것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든 저항의 장소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성을 획득하게 되는 방식은 초대의 형식을 통해 시작된다.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나는 방이란 공간은 “천사”를 초대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천사”가 도래하는 장소이다. 나아가 방은 진리의 빛이 비치는 장소이며 신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감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방, 그 공간은 내밀하다. 때문에 그것은 “실내”라고 다루어지기도 하며 더욱 압축되고 축소되어 “하나의 손바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방에는 다른 공간들로 내밀하다. 이 방의 다른 공간은 김조규의 시 『호궁』에서 “어두운 들창”이 달려 있던 바로 그 방을 연상하는 것으로 시작해 다가갈 수 있다.

본래적인 것이 흘러나오던 곳, 다른 공간인 고향이 마을에 깃들 수 있는 장소였던 곳, 그곳을 이미지화하는 것은 방이다. 이 방은 향수가 시작되는 장소이며 그 자체의 불가능성을 환기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만주의 농촌 공간이 결여하고 있는 상상력을 보존하고 있는 공간이다. 방은 오직 생존과 그 생존에 의한 노동, 생산만을 위한 식민지의 식량 증산을 위한 비자연적인 노동으로써의 농업을 행하는 마을이 잃어버린 진리와 윤리의 상상력이 잉태되는 자리를 환기한다. 이 공간은 식민지라는 일제의 보정의 헤테로토피아 아래서 다른 공간으로 저항의 지평을 마련하는 그런 장소인 것이다. 식민지를 분할하고 그 분할을 통해 통치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의 형식을 채우려는 일제의 의도가 무화되는 장소, 방은 바로 그러한 공간이며 그렇기에 죽음의 차원, 본래적으로 숨겨져 있는 차원과 친연성을 띤 공간이다. 아래의 시들을 통해 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파아란 煙環속엔 天使가 산다  
天使는 憂愁를 宿命 진얏다

오늘밤도 말업시  
나의 室內로 天使를 조용이 불너들이다

天井으로 올오는 煙氣는 외로운 憂愁의 舞라한다  
회오리낙엽도 안인 휘파람도 안인  
天井과 벗하는 쓸쓸한 思想이라 한다

가슴을 꼭 쭈신다 오란다 草上時計  
손을 드니 오오 열손가락이 透明코나

고양이도 안산다 花盆도 엽다  
울지도 안흘란다 외롭지도 안흘란다  
실내  
우리 슬픈天使는 숨소리 하나업는 房속만이 좃단다.

— 김조규, 「室內」 전문, (『만주시인집』, 42쪽.)

시 「室內」가 보여주고 있는 방은 “天井으로 올오는 煙氣는 외로운 憂愁의 舞”가 행해지는 곳이다. 이는 마치 성소에서 봉해지는 성스러운 의식을 연상시킨다. “天井과 벗하는 쓸쓸한 思想”만이 여기서 연기로 피워지는데 이는 슬픔도 없고 “숨소리 하나 없”는 장소를 채우는 것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알려준다. 여기에 천사는 초대되고 도래한다. 그것은 잠시의 순간이지만 본래의 세계가 기원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킨다. 그것은 숨어 있는 것으로 바로 그러한 성질 때문에 ‘방’으로만 찾아들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방이 기원적인 장소로써 세계를 환기하기 때문이다.

이 숨겨진 공간의 장소성은 연기와 같은 것이라 방밖으로 나가면 금세 사라진다. 그것은 노래와 같다. 함형수의 시에서 이러한 ‘방’의 본래적인

모습은 앞서 그가 「귀국」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암시했던 신체성을 환기한다. 존재의 방, 그것은 바로 존재의 신체이다. 신체는 이데올로기의 지평이 가장 권력화하기를 바라는 지평, 지배 이데올로기가 가장 침투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는 일제의 오족협화와 왕도낙토가 그토록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밝혀준다. 함형수에게 있어서 시를 통한 저항의 지평을 확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영토의 지점을 그림자로 만드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이는 아래에서와 같이 자신의 신체 안에 잠재하고 숨어있던 귀향의 지평, 즉 지배 이데올로기에 길항하는 “피투성이”의 “진리”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 바로 “하나의 손바닥”을 밝혀준다.

나는 하나의 피투성이된 손바닥밧태 숨은 天使를 보았다  
 時間의 魔術이여 物質이여 먼지 갓튼 感傷이여  
 天使가 깨어나면 찢어진 空間을 내음새가 돈다

아름다운 皮膚의 湖水여 노래의 忘却者여 깨라  
 眞理의 빛(光)치여 어두운 寢床이여 돌(石)이여 눈물이여  
 나는 하나의피투성이된 손바닥우에 異常스러운 天使를 보았다

— 함형수, 「나는하나의손바닥우에」 전문, (『만주시인집』, 47쪽)

1연에서 화자는 손바닥 밑에 숨은 천사를 발견한다. 그것은 “時間의 魔術이”며 “物質(물질)”이다. 그것은 먼지 같은 “感傷(감상)”이다. 천사, 그것은 찢어진 공간에만 깃드는 것이다. 그 공간은 “들창”을 연상시킨다. 천사는 신체에서 발견되지만 그것은 신체의 틈을 넓히는 것을 통해 “연기”와 같은 “내음새”를 느끼게 하도록 한다. 이 공간의 특성은 헤테로토피아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 공간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결여하고 있는 기원적인 인간의 가능성과 상상력을 보존하고 있다. “眞理의 빛(光)치여 어두운 寢床이여 돌(石)이여 눈물이여”라는 호명에서는 화자

에 의해서 이 장소에, 이 공간에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들이 호명된다. 2연의 시작에서 “망각자여 깨”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천사에 대한 인식을 “異常스러운 天使”로 수정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다른 공간의 지평을 환기하는 대상으로서만 거기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망각자”인 우리는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다른 장소인 방에서 천사를 감각할 수 있는 것이다.

천사에 대한 감각은 더 나아가 신에 대한 감각으로 나아간다. 신에 대한 감지는 천사보다 더욱 강력하게 윤리와 진리의 초대를 촉구하며 신의 부재의 현재성을 밝혀준다. 물론 신을 감지하는 자리 또한 다른 장소로서 환기되는 방이다. 방은 신이 초대되고 그 초대로 부재가 드러나는 신의 공간이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자.

아래의 인용사에서 볼 수 있듯이 찢어진 틈새로 내음새를 연기로 올리던 진리의 차원은 “광선”을 통해 신의 지평을 열어 준다. 그것은 때문에 “또 하나의 문”을 가르친다는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멀-니 暗黑속을 쫓코오는 히미하나마 확실한 光線과갓치  
아모리 衰弱한 肉體와 아모리 敗北한精神에게도  
또하나의 門을가르치는  
나의神은 그런 慈悲의 神이리라

(중략)

地上에 사는 온갖것의 享樂과  
地上에 사는 온갖것의 자랑과  
地上에 사는 온갖것의 價値와  
地上에 잇는 地上에 잇는 온갖 모-든것을 가지고도 바꿀수업는  
나의神은 그런 高貴한 神이리라

해와 달과 별과

動物의 系列과  
植物의 種類와  
人類의 歷史와 이모-든 것을  
單한번의 憤怒로서 재가 되게할수 있는  
나의神은 그런 恐怖의 神이라라

— 함형수, 「나의神은」 부분, (『만주시인집』, 44-45쪽.)

이 시에서 함형수는 신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신”을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이 지평이 ‘방’이라는 축소된 다른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요청되는 신의 속성은 절대적인 신에게도 요구되는 그런 것이다. 이는 보편적인 진리로서 가능해야할 신인데, 문제는 화자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러한 신이 부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방이라는 공간은 이 부재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공간이다. 왜냐하면 방은 고립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방이 지닌 다른 공간의 특성, 방이란 공간이 가리키는 이면적 특성을 상기시킨다. 그 지평에 겹쳐져 있는 것이 바로 ‘무덤’이다. 그리고 이는 방의 공간이 죽음과 겹쳐진 공간이며 그로 인해 윤리와 진리의 부재, 신의 부재를 드러내는 다른 공간인 무덤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무덤 공간 방, 방인 무덤 공간은 시간과 단절된 헤테로토피아로 나타나며 이 공간들은 나란히 배치되어 방이며 무덤인 공간들이 이룬 다른 공간인 마을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 그 마을은 묘지의 공간을 환기한다. 다음의 인용시를 보자.

靜穩의집  
무덤은 너무나 寂寥하다  
  
하도 故鄉을 그릇기  
녁시나마 南쪽을 向해스도다

외로운 밤엔

별비치 慰撫의 손을 나린다는데

墓碑업는 무덤들이

웅기 웅기 정답게 돌너안젓구나!

눈보라 사나웁든

매든만흔 歷史를 이야기 하는거냐.

— 천청송, 「先驅民」 부분. (『만주시인집』, 60-64쪽.)

인용된 부분은 『선구민』의 부분으로 묘지에 대한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 부분의 일부이다. 여기서 묘사되는 무덤은 마치 고립된 공간인 방의 특성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靜穩의집/무덤은 너무나 寂寥하다”라는 표현에는 이런 맥락이 얹혀 있다. 이 무덤은 남향으로 놓여 있으며 “매든만흔 歷史를 이야기”를 하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웅기 웅기 정답게 돌너안젓구나!”에선 마치 집들이 둘러앉은 마을을 연상시키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마을의 공간이 무덤과 같다는 인식일 것이다. 거기에는 윤리와 진리가 부재하고 세계로부터 고립된 방의 공간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그것은 방이며 무덤이며 마을이자 묘지이다. 이러한 공간의 겹침은 고향으로의 귀향이 왜 불가능한지도 암시한다. 우리는 죽음의 공간, 즉 윤리와 진리가 부재하는 공간에 놓여 있으며 바로 그렇기에 우리의 본래적인 장소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립된 공간으로서의 방, 이 방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공간의 장소성은 죽음의 장소성만 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보편적인 것의 부재와 그 부재의 초대를 통해 미래의 지평에 이러한 진리의 차원을 보존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재만 조선인 시인들이 만주에서 살던 당시에는 윤리와 진리의 지평은 배재되고 있던 차원이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우며 아시아에서 근대를 초극한

국가가 되고자 했던 일본이 시대를 지배하던 때이다. 그 때에 만주에서는 본래적으로 인간의 상상력을 가능하도록 했던 진리에 대한 질문과 같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도 꺼내기 어려운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장소—배제된 죽음의 장소성으로서의 질문의 장소—를 마련해두는 것, 그러한 다른 장소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과업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 볼 때, 그리 많은 편수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장소로서의 방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업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본래적인 저항의 지평, 진리라는 귀향할 고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바로 그러한 저항을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평할 수 있다.

더불어 재만 조선인 시가 다른 공간으로서의 방과 무덤을 보여주는 작업이 일제의 근대 국가 기획이 결락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반복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것은 진리에 대한 물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질문의 근본화는 근대국가가 권력을 통해 강화하려는 “영광”이라는 차원을 문제화하는 지점이다.

일제가 추진한 만주국의 지배 이념인 ‘오족협화’와 ‘왕도낙토’의 담론은 대동아공영권에 따른 만주국의 국가 이념의 기반을 닦는 것이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이것이 근대국가가 강조하는 “영광”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근대 국가가 진리 혹은, 윤리의 지평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신 거기에는 근대 체제에서 국가의 승리, 경제적 풍요, 승전 등의 영광된 기표만이 자리하고 있다. 일제는 이러한 국가의 “영광”을 대동아공영이라는 지평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재만 조선인의 일련의 시들은 방과 무덤의 다른 공간을 바탕으로 일제가 추구한 “영광”이 결여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재현하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 볼 때, 재만 조선인 시의 다른 공간 문제는 기존과는 다른 지평에서 일제와의 저항의 지점을 새롭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재만 조선인의 다른 공간 문제는 우리에게 재만 조선인 시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나가며

지금까지 재만 조선인 시, 그 중에서도 『만주시인집』과 『만선일보』 문예란 시를 바탕으로 다른 공간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다른 공간이란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기존의 공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 공간들이 배제하거나 포함하는 것을 통해 양립 불가능한공간이 함께 배치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살펴본 바, 재만 조선인 시에는 고향과 방, 무덤 등의 공간에 다른 공간이 양립되어 형상화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보정의 헤테로토피아, 즉 식민지 공간을 형성함에 있어서 일제가 공간을 분할하고 영토화하는 작업을 통해 통치적 합리성을 추구한 것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고향의 다른 공간은 일제의 지배 담론에 의해 만주 이주 조선인들이 만주의 농촌에 할당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만주의 농촌공간은 조선 이주민들이 떠난 공간인 고향을 모방하여 일구어낸 공간으로 이 과정에서 고향은 만주에 기입되었고 이것은 고향을 문제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고향은 재만 조선인들을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고 귀향의 불가능성을 환기하였다.

방의 다른 공간은 근대 국가체계, 즉 일본의 제국이 근본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지점을 우리에게 환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윤리와 진리의 공간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를 드러내는 방의 다른 공간은 저항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방은 진리와 윤리를 우리에게 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재현이 우리에게 문제적인 이유는 방이란 공간의 고립성 때문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무덤의 다른 공간으로 방과 마을이 배치되고 있음과 맥락을 같이 한다. 무덤은 방보다 진리의 부재를 더욱 강화하는

공간으로 방 뿐 아니라 늘 고립된 방인 마을의 공간성을 드러내 주었다. 방과 무덤이 진리와 윤리의 부재와 더 나아가 진리의 윤리가 죽음의 공간인 무덤에 배치되어 있음을 보여줄 때, 이는 일본 제국주의가 제국의 “영광”으로 가리려고 하는 결핍의 지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다른 공간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품의 수가 제한적이고 그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독해가 주조를 이루는 연구환경 속에서 본고가 시 텍스트에 대한 과도한 의미화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시 작품의 텍스트를 여러 차원에서 살펴보고 담론화하려는 작업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헤테로토피아의 개념 도입을 통해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통치적 합리성이 재만 조선인 시에 다른 공간의 문제를 야기했음을 논했는데, 이는 일제 지배 이데올로기의 스펙터클인 “영광”의 허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제국의 “영광”이 은폐하고 있는 허구성은 단순히 일제의 선전구호가 허구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인식과는 맥락이 다르다.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통치적 합리성과 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근대적 국가 시스템의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 공간의 지배는 재만 조선인의 시에 깊은 영향을 남겼으며 이들 작품은 그 자체로 저항을 메시지화하거나 저항을 요청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저항의 지평을 우리에게 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저항의 근본적인 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재만 조선인 시의 다른 공간 재현은 우리에게 그들이 어떤 저항의 지점을 획득했는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우선 재만 조선인은 고향에 기입된 허구적 고향에 의해서 기원적인 고향을 상실했다. 이는 기원적 고향을 다시 공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환기한다. 기원을 다시 고향과 같이 늘 회귀할 수 있는 지평으로 되돌리는 작업은 근대 민족국가가 그 성립을 위해 상상의 공동체를 구축하고 그 바탕으로 국가

의 “영광”을 기입한 것을 문제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항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이 기원은 저항을 부른다. 그렇게 할 때, 저항은 기원을 지속적으로 기원으로서 돌아오도록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이 드러난다. 그것은 근대국가의 체제 이념에 근본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나는 다른 공간이자 헤테로토피아인 고향, 방, 무덤은 이미 있는 장소인 기원적인 국가라는 영토에 근거하면서도 그것에 새로운 배치를 가능하게 하여 저항의 지평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점을 인정한다면 재만 조선인이 다른 공간화한 지평이 하나 더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공간은 시라는 언어 공간이다. 재만 조선인이 기원화한 고향, 방, 무덤은 바로 시라는 재현 공간에 배치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라는 공간 안에 저항의 공간을 가져다 놓았을 수 있다는 인식은 시에 대한 다른 영역에서의 독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식이다. 이 지평의 기원을 재만 조선인 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때, 본고는 재만 조선인 시의 연구를 기존의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연구에서 벗어난 좀 더 보편적인 연구 지점에 가져다 놓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렇게 볼 때, 새로운 독해의 시도는 재만 조선인 시 연구에 다른 맥락을 부여하고 특히, 우리 문학사에서 1940년 대 시기 연구를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본고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기초자료

- 박팔양 외, 「만주시인집」, 오양호, 『만주시인집의 문학사 자리와 실체』, 역락, 2013.
- 천정송 외, 「<만선일보> 문예란 발췌본」, 오양호 『만주조선인문학연구』, 문예출판사, 1996.

### 단행본 및 외국도서

- 김경일, 『동아시아의 민족 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 김재용, 『만주, 경계에서 읽는 한국문학』, 소명출판, 2014.
- 김창선, 『만주문학 연구』, 역락, 2009.
- 안영길, 『만주문학의 형성과 성격』, 역락, 2014.
-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 오양호, 『만주시인집의 문학사 자리와 실체』, 역락, 2013.
- \_\_\_\_\_, 『만주조선인문학연구』, 문예출판사, 1996.
- 조규익, 『해방전 만주지역의 우리 시인들과 시문학』, 국학자료원, 1996.
- 한석정 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사, 2008.
- 오카다 히데키,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역락, 2008.
- 미셸 푸코,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 \_\_\_\_\_,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 마르틴 하이데거, 『회상』, 나남, 2011.
- Giorgio Agamben, *The Kingdom and Glory*, Stanford Univ Pr, 2011.

### 소논문

- 곽은희,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 『인문연구』 70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 김영주,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인식과 만주성 연구」, 『한

- 국문학논총』 제58집, 한국문학회, 2011.
- \_\_\_\_\_, 「재만 조선인 시문학의 만주성 재현 연구」, 『시문학』 제112집, 한국어문학회, 2011.
- 김미란, 「'낙토' 만주의 농촌 유토피아와 공간 재현구조」, 『상허학보』 제33집, 상허학회, 2011.
- 김훈겸, 「재만 조선인 시문학의 디아스포라적 양상 : 일제말기 유치환, 김조규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8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 장성규, 「일제 말기 카프 작가들의 만주 형상화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21,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07.
- 진영복, 「재만조선인의 내선일체 담론과 균열」, 『한민족어문학』 제58집, 한민족어문학회, 2011.
- 와타나베 나오키,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과 '만주' : '협화'의 서사와 '재발명된 농본주의」, 『한국문학연구』 제33집, 한국문학연구회, 2007.
- 이동진, 「만주국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와 식민 사이」, 『만주연구』 제13호, 만주학회, 2012.
- 이명찬, 「한국 근대시의 만주 체험」, 『한중인문학연구』 13호, 한중인문학회, 2004.
- 이성천, 「만주국 국책이념의 문학적 투영 양상에 관한 논의 고찰」, 『한국시학연구』 40호, 한국시학회, 2014.
- 이성혁, 「1940년대 초반 식민지 만주의 한국 초현실주의 시 연구」, 『우리문학연구』 34, 우리문학회, 2011.
- 이인영, 「만주와 고향 : 『만선일보』 소재 시에 나타난 고향의식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6, 한국근대문학연구회, 2012.
- 신주철, 「김조규의 이중적 시 쓰기의 양상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제32집, 우리문학연구회, 2011.
- 전월매, 「일제 강점기 재만조선시인 범주와 거류형 시인의 만주 인식」,

『만주연구』 제9집, 만주학회, 2009.

최봉룡, 「만주국의 국적법을 둘러싼 딜레마 : 조선인의 이중국적 문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9집, 한국민족운동사 학회, 2011.

〈Abstract〉

## The Study on Other Space in Korean Manchuria Poems

– focus on Collected poem of Korean Manchurian and Manseon il bo(daily)

KIM HAK JUNG  
(Kyunghee Univ.)

This study attempts to look at the space of which Korean Manchurian poets problematize in their writings. The poems of the Korean Manchurians tend to pose a problem of space by locating ‘different spaces’ in the space of hometown, room and tomb respectively. The ‘different space’, which one could define in the same sense of the ‘Other space’, arguably manifests its presence as echoing the concept of Heterotopia. The term Heterotopia, contrast to Utopia, helps one understand the spatial significance in the Korean Manchurian poems with an extended view of space, as Heterotopia means the spaces located as multiple within a single space that is based on a real space. The established studies of Korean Manchurian poems have often understand the depiction of spaces, such as the hometown and the room, in the sense of a single space. However, this paper demonstrates a different concept of the space, which exists as multiple yet an incompatible form within the realm of the single space.

Indeed, one could argue the theme of the room represented by the Korean Manchurian writers foreshadows the sense of the multiple, when the room is problematized in their poems. One of the reasons for this tendency can be found by looking through a lens of history, regarding how the Japanese ruling ideology and governing rationality influenced the Manchurians’ space in the

past. Japanese government intended to territorialize the Manchurian area by dividing it, in order to effectively actualize the dominant ideology called the Five Races Harmony and Royal road of Paradise. This policy was initially introduced as a way to build up Japanese' governing rationality, which later led most of the Korean Manchurian to migrate to the countryside according to the order. As Koreans were highly skilled in agriculture, especially in regard to irrigation, it was necessary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allocate the Koreans in the rural spaces so that they can benefit by the increased food production in Manchu. In light of this, the governing rationality of Japan provides the valid point of circumstances where the Korean Manchurians mainly concern the space in their writings.

This paper focuses on the Korean Manchurian poets' use of hometown as a leitmotif, arguably related to their idea of the rural Manchurian area. They often attempt to construct the rural area of Manchuria by means of re-actualizing the homeland. In other words, they chose the method to build up the cultivating space run by irrigatio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would order to them. By doing so, the space depicted in this way enables the writers to represent their homeland and secure the cultivating land in Manchuria at the same time. Therefore, one could find the signs of the juxtaposition of the rural space of Manchuria and their actual residence in their depiction of homeland. The image of homeland in their writings presents the place where the sense of loss and nostalgia overlaps, which this paper finds problematic in discussing the Korean Manchurian poets. Arguably, the image suggests one's loss of home from the origin. This means that the homeland in their writings is often represented as a place they can never return. Yet, what this image of homeland implies is not just the impossibility of return, or the loss of origin. The motif also tends to raise an issue that lies at a more essential level, emerging in a more scrutinized way. Because this motif problematize ethics and truth. One could

find the signs in the space of the room and grave.

The other spatial significance arguably found in the space of the room is that of the ethics and truth. Despite its solitary sense in terms of the spatial occupation, it is the very nature of the room, as the solitary, that possibly preserves the interior values of the world that the exterior world can hardly underpin. What should be pointed out about the image of the room is its overlapping manifestation with the image of the grave. The grave, a space that strengthens the sense of lack of the ethics and truth, shows the spatiality of not only the room itself but also the town as a place of permanent solitary. By reading the Korean Manchurian's sketch of the room alongside the image of grave, one could pose an issue on what the modern state system, particularly Japanese Imperialism, essentially lacks in their governing. The point where the space of the room and grave is located in the space of death, as this paper will discuss in the end, suggests how the lack of the ethics and truth in the body of Japanese Imperialism is obscured by the Imperialist myth of the glorious prosperity. Whilst the void nature of the "glory" underlying the spectacles of Japanese ruling ideology is revealed by the Korean Manchurian's poems, what the representation of the room and grave resonates to the reader is arguably the space of resistance. The poets' literary use of the room succeeds to hold the resistant significance by problematizing the space.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a new way of reading the poems of the Korean Manchurians, in terms of the motif of the homeland, the room and the grave as The Other space and Heterotopia. Key here is that these spaces are based in an already established area, yet still problematize and allow one to look within the arrangement of the multilayered spaces, manipulated by Japanese government. The space of resistance created in the Korean Manchurian poems actively contends with the space where the Japanese once attempted to occupy Manchuria.

**Key words:** Manchuria, Korean in Manchuria, Heterotopia, space, other Space, multilayer, Hometown, Room, Tomb, five-race harmony, royal road of paradise, Glory, Arrangement, problematize, Governing rationality.

논문접수일 : 3.15 / 심사기간 : 3.16 - 4.5 / 게재확정일 : 4.10

